

## 특수 교육 대상자의 대학 입학 정책

백 위 열 | 나사렛대 총장

### I. 서론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21세기는 지식 및 정보가 한 국가의 힘과 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의 직업적 특징은 노동 및 기술 집약적 시대로부터 지식 집약적 시대로의 전환, 직업의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 컴퓨터 및 정보 통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문화, 예술, 복지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의 활성화, 재택 근무 등 가변적 근무 상황 기능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중앙고용정보관리소, 1999). 또한 교육과 관련하여 이러한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은 누구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과 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 평생 학습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고려할 때, 장애인에게 있어서 향후 직업 전망은 이전보다 훨씬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가능성도 장애인이 직업적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Rubin & Roessler, 1995). 지식 정보화 사회의 시대 조류에 부응하고 장애인이 지닌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등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대학 교육은 지적 인재를 양성할 뿐 아니라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은 장애인이 그 사회의 문화적 엘리트로서, 또는 전문직 종사자로 양성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고등 교육 확대를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장애 학생 대학 입학 특별 전형을 1995년도부터 실시하여 그 동안 교육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장애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2개 대학에서 1,104명의 장애 학생을 모집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해가 거듭 될수록 장애인 특례 입학울 허용하는 학교 수와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 비례하여 그에 대한 질적인 교육 지원 서비스는 만족할 만큼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례 입학제를 실시하고 있는 각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방침과 학교의 사정에 따라 장애 학생들을 받아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편의 시설이나 학업상의 배려는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 입학 제도를 통하여 입학한 많은 장애 학생들이 학업과 생활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들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로 개발하기 위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례 입학 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 학생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대학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 학생의 대학 입학 정책과 그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에 기초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장애인 고등 교육이 실시된 배경을 살펴보고, 장애 학생 고등 교육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특례 입학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특례 입학 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장애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장애인 고등 교육의 배경

### 1. 사회 통합

최근 특수 교육의 주요 경향은 장애 학생을 비장애 학생들과 따로 교육시키던 분리 교육 상황에서 벗어나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같이 교육받는 통합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Hallahan & Kaufman, 1994). 특히 정상화(Normalization) 개념의 등장 이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교육은 분리 교육에서 단계적 통합 교육을 거쳐 완전 통합 교육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통합 교육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아야 하며,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장애인 복지법에서도 잘 천명되어 있다.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장애를

극복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된 환경에서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특수 교육은 유아, 초등, 중등으로 이어지면서 분리 교육 위주로 실시되어 온 것에 비추어 대학에서의 교육은 완전 통합 교육을 지향하고 있어 사회 통합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제철의 원리에도 부합된다(김동연, 조인수, 최성규, 1998).

### 2. 법적 근거

장애인 고등 교육을 위한 근거로는 헌법과 교육 기본법, 특수 교육 진흥법 등에 비교적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함으로 교육권을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 기본법(법률 제 54373호) 제 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동법 제 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신앙, 신념,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과 학습의 기회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 교육 진흥법(법률 제 3053호) 제 1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고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생활 능력을 기르게 함으로 그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에 도움을 주어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의미하는 것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권리를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불편함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되며, 아무리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3. 장애인 고등 교육 확대 정책

교육부에서 발표한 특수 교육 발전 방안(1997~2001) 가운데 장애인의 고등 교육 확대 방안으로서 제시된 것을 살펴보면, 원격 학사 제도 도입과 재활 전문 대학 설립, 장애인 교육 시범 대학 지정 운영, 수학능력시험 시 장애 학생 배려 등이 포함되어 있다(교육부 보도 자료, 1997).

먼저 1998년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장애인을 위한 원격 학사 제도를 도입하여 입학할 희망하는 장애 학생 전원에게 고등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고, 둘째로 수도권에 국립 재활 전문 대학을 설립하여 11개 학과에 370여 명을 모집, 교육시키고, 앞으로도 공립과 사립 재활 전문대 설립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셋째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각 1개교를 장애인 교육 시범 대학으로 선정하여 지원, 육성하고 각종 행·재정 지원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수능 시험 때 시각 장애와 약시 학생에게는 점자와 음성 평가 도구를 제공하고, 청각 장애 학생에게는 듣기 평가를 필기 시험으로 대체하여 실시하며, 뇌성마비 학생에게는 시험 시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지금까지의 장애 학생 교육이 초·중등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성으로 장애 학생들의 고등 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Ⅲ. 장애 학생 특례 입학 현황과 문제점

### 1. 특례 입학 이전 상황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하여 성적이 우수하고 학업 능력이 있는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장애인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어렵고 또한 많은 제한이 있었다(정립회관, 1988). 이 때 대학을 졸업한 장애 학생들은 지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여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예비고사에 합격한 시각 장애 학생들이 시설과 장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여러 대학에 입학이 거절된 사례도 있었다(오세철, 1997).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평등을 모토로 했던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ople : IYDP)' 와 1988년에 있었던 서울 장애인 올림픽 대회는 일반인이 장애인의 능력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매년 입시 때만 되면 신문 의 사회면을 장식했던 대학 입학에서의 장애인 차별도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여 지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들도 특정 학과를 제외하고 입학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 학생의 학과 선택에는 많은 제한이 있으며, 특히 많은 대학들이 공과 대학에는 장애 학생들의 입학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박옥순, 1999).

이러한 경쟁 위주의 대학 입학 정책의 결과 80년대까지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장애 학생들은 어느 정도 대학 진학이 가능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진학은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 교육

에서 제외되어 왔던 장애 학생들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교육권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1995년부터 장애 학생 특례 입학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 2. 특례 입학 이후 상황

장애인에게 있어서 고등 교육은 육체적 장애의 제한점을 보상에 주고, 다양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며, 선택의 기회를 넓혀 주고,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자신의 소질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장애인들이 고등 교육 기회를 가짐으로 자신들과 관련된 사회 정책이나 입법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1995년도부터 장애 학생의 고등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학 입학 특수 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장애 학생 특별 전형 입학 제도는 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 29조와 특수 교육 진흥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일정 비율의 수학 능력이 있는 장애 학생을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원의 입학을 허가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의 고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교육부 장관이 대상자를 선정해 오다가 선정 심사 절차가 번거로운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8학년도부터는 대학의 장이 특별 전형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국립 특수 교육원에서 실시한 특별 전형 대상자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95학년도에 297명, '96학년도에 447명, '97학년도에 525명, '98학년도에 566명 등 총 1,827명이 대학 입학 대상으로 선정되어 고등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국립 특수 교육원, 1998).

## 3. 특례 입학의 문제점

### (1) 가치 저하 및 낙인

장애 학생 특례 입학 제도는 장애인 고등 교육에 있어서 가장 논쟁이 활발한 제도가 되었으며, 도입 당시부터 찬반이 엇갈려 나타났다(박옥순, 1999). 이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특례 입학 제도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제한되어 왔던 장애인 고등 교육의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해 왔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장애 학생들에 대하여 학력이 떨어지는 특별 전형 입학자라는 낙인(Stigma)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졸업 후의 취업을 위주로 운영되어 온 특수 학교 교과 과정 하에서 장애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특례 입학 제도는 이처럼 고등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왔던 많은 장애 학생들에게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학력 저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장애 학생에 대한 이러한 가치 절하는 일반 전형을 통하여 비장애 학생들과 경쟁당당하게 경쟁하여 입학한 장애 학생들에게도 해당되며, 결국 모든 장애 학생의 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특례 입학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가치 저하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 (2) 편의 시설 문제

장애인 특별 전형 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대부분의 장애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 내의 물리적 환경인 편의 시설이 미비한 데서 오는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편의 시설

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 학생들을 입학 시켰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나 수업시의 지원 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 특례 입학을 실시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편의 시설 실태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김정열, 1996; 최교운, 1998).

이들 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지도나 유도 블록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학습 보조를 위한 도우미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건물의 접근성, 도서관 이용과 화장실 사용, 출입문 시설 등에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학생이 대학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하려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야 한다.

### (3) 학습 지원 서비스의 미비

장애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서는 건물과 강의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 주는 편의 시설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이 강의를 이해하고 과제물을 작성하며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학습 지원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습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청각 장애 학생을 위한 수화 통역과 대필, 과제물 작성 보조, 시각 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 교재 준비와 강의 녹음, 대독 서비스, 지체 장애 학생을 위한 노트 필기, 시험시 대필 등이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개발하여 학업을 도와 주는 것도 필요하며, 졸업 후 취업과 관련하여 재학 중 진로 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김종인, 1999; Witt, 1992). 실제로 대학을 졸업한 많은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취업처를 발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 Ⅳ. 학습 지원 서비스 내용

### 1. 행정적 지원

#### (1) 장애 학생 전문 상담 센터 설치

장애 학생의 입학 상담에서부터 입학 후 학업 및 생활 그리고 졸업 후의 취업에 이르기까지 학교 생활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개인별로 상담하고 지원하는 전문 상담 센터가 대학별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 센터에서는 각종 학습 지원, 도우미 연결, 학교 생활 지도, 특별 장학금 개발, 취미 및 여가 안내, 정보 통신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이정운, 1999). 이를 위하여 특수 교육이나 재활, 사회 복지, 교육학 등을 전공한 전문 상담 교수를 배치하여 장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지도해 주고 그들의 고통을 상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본인이 소속해 있는 나사렛대학교에서는 2000년 1학기부터 장애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습 지원 센터(Academic Support Center)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재학 중의 학업 및 대학 생활로부터 졸업 후의 취업에 이르기까지 장애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를 개인별로 상담하고 있으며, 비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도우미 제도를 통하여, 학업 보조, 이동, 대필, 수화 통역 등 영역으로 나누어 지원하여 주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곤란한 장애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개발을 하고 있으며, 장애 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 학생용 기숙사 건립도 고려 중에 있으며, 장애 학생이 과목을 듣는 교수들에게 장애 학생 지도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다.

#### (2) 장애 학생 모임 및 도우미 제도

장애 학생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학업과 관련된 관심사를 나누며 고통을 토의할 수 있고, 그

들의 권익 옹호 활동(Advocacy)을 할 수 있도록 장애 학생을 위한 동아리 모임을 조직해 줄 필요가 있다. 최근의 장애인 재활 사업의 특징 중 하나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장애 학생들 간의 건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 학생들의 모임 때 그들을 보조해 주는 동료 학생 도우미들과 함께 모여 서로 간의 입장을 피력하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장애 학생들의 학업과 대학 생활을 도와 주기 위한 도우미 학생들을 조직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후 활동하도록 하여 장애 학생의 학습 활동과 사회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도우미 학생들에 대하여 재정이 허락하는 한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활동에 따라 약간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우미 학생들이 보조할 수 있는 영역에는 수화 통역이나 수업 시 노트 필기, 시험볼 때 대필 등의 학습 보조 활동, 교재나 노트, 과제물 등을 녹음하는 일, 교내외 이동이나 학교 활동을 보조하는 일 그리고 자료 찾거나 오타 교정 등이 있다.

## 2. 교육적 지원

### (1) 학습 지원

학업 관련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신청을 받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수업 시의 대필, 강의 녹음, 수화 통역, 과제물 작성, 시험 칠 때의 보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장애 영역별로 학습 지원 서비스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시각 장애의 경우에는 강의를 녹음해 주거나 확대 장치를 사용하게 하고, 청각 장애의 경우에는 수화 통역, 대필, 청각 보조 장치 등이 필요하며, 지체 장애의 경우에는 노트 대필, 이동시 보조, 시험 시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각 장애의 정의, 원인,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교수 학습 전략을 책자로 제작하여 교수들이나 교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자료 제공, 학습 전략 워크숍, 그룹 스터디 등의 서비스와 대학 생활 적응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 등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어야 한다.

### (2) 특별 장학금 마련

장애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위하여 특별 장학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장학금은 장애 학생이 학업상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수당 형식으로 지급되어야 하며(김동연, 1999), 수업에 필요한 경비, 복사, 녹음, 프린트 비용과 교재 및 학습 자료 구입 비용 등으로 지출될 수 있다. 특별 장학금의 재원은 국가의 지원(교육부나 지방 자치단체), 학교의 예산, 기부금, 민간 자원 개발 등을 통하여 조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부에서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는 곳(곰두리 장학회, 삼성전자 장학금, 각 장애 영역별 복지 단체 장학금 등)을 파악하여 장애 학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 3. 생활 지원

### (1) 기숙사 이용

장애 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 제한으로 인하여 학업을 하는데 많은 문제가 따르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거주 문제이다. 강의실에서 가급적 가까운 곳에 장애 학생용 기숙사가 위치해 있어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기숙사를 장애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장애가 심한 중증 지체 장애의 경우에는 기숙사에

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장애 학생의 학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 학생들의 경우 같은 장애끼리 한 방에서 생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함으로 비장애 학생들과 교류하며, 사회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장애 학생용 기숙사에는 개별적인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넓은 공간의 방, 식사 서비스 보조 요원, 야간 도우미, 인터넷 서비스, 학습실, 경보 시스템, 전화 증폭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동아리 및 여가 활동

대학 생활은 지식 획득만이 아니라 동료 학생들과 교수들과의 다양한 인간 관계를 통하여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 학생의 동아리나 취미 활동도 적극 권장함으로 지, 정, 의가 조화롭게 발달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흔히 장애 학생들 가운데는 그 동안 받아 온 많은 거부와 차별로 인하여 대인 관계를 요구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위축에 대해서도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4. 환경 개선

### (1) 건물의 접근

장애 학생의 학교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배치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도로 표시, 건물의 출입구 표시, 공중 전화, 장애 학생 화장실, 장애인 주차 공간 등이 표시된 캠퍼스 안내 및 시설 지도를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건물목에는 단차를 제거하여 휠체어를 탄 사람이 차도에서 인도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 학생용 주차 공간을 건물 출입구 가장 가까운 곳에 확보하여 캠퍼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 학생이 시설 관리부에 차량 등록을 하면 무료로

주차권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주차장에서 강의실에 이르는 길에는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 장애 학생들의 강의실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기에는 조작 버튼을 낮게 설치하여(80~120cm 정도) 휠체어를 타고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음성 안내 시설도 마련하여 시각 장애 학생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2) 강의실 접근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나 출입문, 경사로는 유효 폭이 1.2m 이상 되어야 하고, 강의실 출입문은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90cm 이상의 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복도는 유효 폭이 1.2m 이상 되어야 하고, 손잡이가 규정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평탄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화장실에도 대변기와 소변기, 세면대 등이 규격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특히 대변기는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도서관 시설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출입구의 유효 폭이 90cm 이상 되어야 하고, 도서 목록 카드는 바닥에서 80~85cm 사이에 위치해야 하며, 서가 사이는 적어도 1.2m 이상은 되어야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휠체어 사용 학생을 위하여 책상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자료 검색대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V. 장애인 고등 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

### 1. 장애인 대학 입학 환경 개선

장애인 고등 교육의 방향을 특별 전형으로만 한정 시켜서는 교육을 통한 사회 통합을 달성할 수 없다. 특별 전형 제도가 그 동안 장애인이 교육에서 배제되어 오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 온 것에 대한 일시적

인 보상책이 될 수는 있지만, 장애인 고등 교육의 유일한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제도가 그 동안 제한되어 왔던 장애 학생들의 고등 교육 기회를 양적으로 넓혀 준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서비스 개발 등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한 장애 학생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준 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장애를 지닌 학생도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2. 적절한 학생 선발 기준 마련

각 학교별로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특례 입학 장애 학생의 입학률 상위 15%에서 60%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일률적인 기준이 대학 입학 문턱을 높이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학교 중심의 입학 기준이 계열에 따라서는 장애인에게 입학 기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특히 예·체능 계열에서 장애 학생에게 높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정 정도의 수학 능력이 검증된 장애 학생이라면 장애가 중증이라도 대학 입학의 문호를 열어야 한다.

## 3. 편의 시설 기준 마련 및 설치

장애인의 고등 교육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강의실 접근을 포함한 편의 시설 마련과 강의와 과제물, 시험 등에 필요한 학습 지원 서비스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오세철, 1997). 교육부에서는 특례 입학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편의 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편의 시설 설치에 재정적인 지출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은 대


학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저조한 편의 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의 시설 설치 정도를 대학 평가 시 필수적으로 반영하거나 장애인 등록금 중 일정 비율을 편의 시설 설치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박옥순, 1999). 또한 교육부에서 편의 시설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각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앞으로 시행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 증진법을 통해서 마련될 편의 시설 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VI. 결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장애 학생들의 고등 교육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며, 장애 학생 특례 입학 제도는 그 동안 제한되어 왔던 장애인의 고등 교육 기회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특례 입학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많은 대학에서 장애 학생의 고등 교육에 대한 관심은 증가한 반면 이에 따른 지원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 및 생활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장애 학생들을 입학시킴으로 그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장애 학생들이 대학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에는 물리적인 환경 외에도 학업 면이나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장애 학생들은 이동 문제, 학업 문제, 주변 환경과의 문제, 학우 및 교수와의 관계, 전공의 문제, 이성 문제, 학비 마련, 졸업 후의 진로 등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장애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 체계 확립, 다양한 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 학업을 위한 생활 보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편의 시설 마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 학생의 고등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대학 입학 후 학습 저하로 인한 가치 절하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질 높은 대학 교육을 통해 그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업에 적합한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는 일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남는다. 

〈참고 문헌〉

김동연(1998). 장애 학생 고등 교육 지원 방안. 현장 특수 교육. 1999년 겨울호, 8~16.

김동연, 김영환(1998). 장애 학생 고등 교육 지원 방안. 국립 특수 교육원.

김동연, 조인수, 최성규(1998). 장애 대학생 교육 지원실 설치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 대구대학교 특수 교육. 재할 테크노파크 사업단.

김정열(1996).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 시설 접근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김종인(1999). 대학의 장애 학생 진로와 대책. 현장 특수 교육. 1999년 겨울호, 34~41.

교육부(1997). 보도 자료.

박옥순(1999). 장애 학생 대학 입학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현장 특수 교육. 1999년 겨울호, 17~25.

오세철(1998). 장애인 대학생의 학습 지원과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지성과 창조. 천안 : 나사렛대학교.

이정연(1998). 장애 학생과 대학의 교육 환경. 현장 특수 교육. 1999년 겨울호, 26~33.

정립회관(1988). 장애인 관련 신문 자료집. 서울 : 정립회관

중앙고용정보관리소(1999). 1999 한국 직업 전망서. 노동부 중앙 고용 정보 관리소.

최교윤(1998). 특례 입학 대학의 장애인 편의 시설을 위한 실질화 방안 연구. 국민대 대학 원 석사 학위 논문.

Hallahan, D., P., & Kaufman, J. M.(1994). *Exceptional childre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6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Rubin, S., & Roessler, R.(1995). *Foundation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cess*(4th ed.). Austin, TX: Pro-Ed.

Szymanski, E. M., & Parker, R.(1996). *Work and Disability : Issues and Strategies in Career Development and Job Placement*. Austin, TX : Pro-Ed.

Witt M. A. (1992). *Job Strateg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rinceton, N. J. : Peterson's.

백위열

미국 메사추세츠 주 동부 나사렛 대학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뉴욕 주 세인트로렌스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뉴욕 주 로체스터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특수 상담학 자격 취득), 미국 동부 나사렛 대학에서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뉴욕 로버츠 웨슬리안 대학 강사를 거쳐, 나사렛신학교 교장,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선교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나사렛 대 총장 및 한국(나사렛 성결회) 선교사 등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 「몇 시입니까?」 등이 있다.